

● Challenge Zone

Health people

글\_김연수 기자  
사진\_아시아경제DB,  
(주)인벤트 디



## 반전 있는 내공 배우 조성하

그야말로 연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 TV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배우 조성하. 주연을 빛내는 조연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는 비중 있는 주연 연기자로 그 존재감을 늘려 가고 있는 그의 행보에 자꾸만 관심이 간다.

### 신스틸러에서 주연 배우로

배우 조성하에게 꼭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신스틸러(Scene Stealer).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으로 주연 못지 않게 주목을 받은 조연을 말한다. 그가 신스틸로 공존의 히트를 친 작품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중심을 잡아 줬고 '욕망의 불꽃'에서는 소위 '욕불 둘째'로 불리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이는 일등공신이 되기도 했다. 그의 활약은 영화에서 그 빛을 더 받았다. '한반도', '화차', '황해', '비정한 도시' 등에서 관객들에게



젊었을 땐 술을 즐기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니 양과 횡수가 현저히 줄었다. 담배는 끊은 지 10년 정도 됐다.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줬다. 결국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황해'로 2011 대중상영화제 남우조연상을 거머 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그는 만년 조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당당한 주연 연기자로 충무로의 러브콜을 받는 명실 공히 최고의 연기파 배우가 됐다.

그를 따라 다니는 또 다른 타이틀은 바로 '꽃중년'. 올해 나이 마흔 넷인 그에게 약간은 낮간지러운 단어지만 자신은 그 타이틀에 무척 애착이 많다고 한다.

### 잘 먹고 금연하고 절주하는 꽃중년

꽃중년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나이에 비해 깔끔한 피부를 자랑하는 그는 평소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과 스킨 로션을 잘 바르는 것이 전부. 대신 '잘 먹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다는 그는 김치찌개, 청국장 같은 한식을 즐겨 먹는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걷기와 가볍게 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야외 촬영 시 조금의 짬이라도 나면 주변에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술자리에 갈 뿐, 그에게 과음이란 없다. 젊었을 땐 술을 즐기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니 양과 횡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담배는 끊은 지 10년 정도 됐다. 평생 성대를 써야 하는 직업이니 기관지 걱정도 됐고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을 걱정한 딸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좋은 작품에 좋은 연기자를 꿈꾸다

조성하는 최근 영화 '비정한 도시'에서 택시기사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그는 생계를 위해 택시기사, 배추장사, 화분장사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93년 입단한 대학로 극단 '전설'에서 본격적인 연기 인생을 시작한 그는 생활고와 싸우며 10여 년을 악착같이 버텼다.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서 무명으로 활동하며 가족 부양에 애썼건만 큰 딸이 태어났을 즈음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배우일을 관두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었다고 한다. 그런 가족의 힘이 그를 연극 무대에 서게 하고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게 했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것이다.

이제 그 어떤 배우보다 주목받고 있는 충무로의 블루칩 조성하. 그의 요즘 목표는 '좋은 작품을 하고 좋은 연기자라는 평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던 만큼 그의 필모그래피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믿는다.